

Going on a Journey without a Map

By Park Choon Ho, Kim Chong Yung Museum Curatorial Office Chief Curator

Priya Sundaravalli is an Indian-born artist with a unique career. She initially studied medicine, dreaming of becoming a beneficent doctor, but went to the United States to study biotechnology after graduation. By chance she joined a ceramics class offered by the school during her study in the United States and it was then that she discovered her artistic talent. She gave up becoming a doctor and chose the path of a ceramics artist.

The three works she is displaying at this exhibition can be described as being both a ceramic sculpture and an installation simultaneously. She has chosen the titles of her works from a collection of Kim Yang Shik's poems that she personally received from the poet. She has exhibited very lyrical works such as *On the full-moon night You rolled a fragrant flower-cart Laden with words of pure wisdom To an unknown friend* in which a full moon shines over 108 flowers displayed on a wall. In *I live this fall Lost by myself What a delight* four large, leaf-shaped ceramic pieces are displayed on a heap of fallen leaves and in *Someday the sun will turn bright again and the sea blossom into fresh morning's dream* dark gray ceramic pieces are placed on a white gravel field. However, these works are not only mere manifestations of her emotions.

According to her description of *On the full moonlit night...*, the import of 108 flowers arranged on a wall is similar to 108 passions or defilements that disturb and pollute the mind and body of all sentient being as defined by Buddhism. In this work she represents human anguish with beautiful flowers where the full moon is symbolic of abundance. This presentation in concert with lines of poems quoted for titles is quite paradoxical. The artist seems to see human affliction not as pain but as a positive element leading us to the level of awakening or a release from Samsara, the cycle of birth and dea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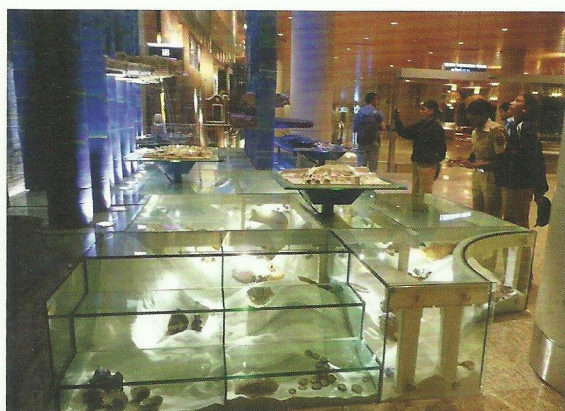
Standing out in her other work, *I live this fall...*, are four inlaid ceramic pieces. It was perhaps considerably difficult to produce the thin pieces due to the material properties of clay and their relatively large size. The images on the pieces were rendered by inserting white clay into holes using a needle. They feature the scenes of a remote area in Australia and express the mysticism the artist felt whilst seeing the Aboriginal paintings there. In this work the fallen leaves are in contrast with the symbolic pictures. Its title seems to

be a metaphor for her insight into life.

It is said that *Someday the sun will turn...*, with its dark gray ceramic pieces scattered here and there, hark back to the volcanic rocks in Jeju. Although it was a very intricate structure to fashion with clay, she completed it in a brief period of time using over 200kgs of clay. It seems impossible to have achieved such a feat without being completely immersed in the work. As its title and form indicate, the artist seems to have been deeply moved by the sun rising over the horizon, this work being a representation of the hope of life.

Priya Sundaravalli's works with their extremely sensitive form and texture are well suited to their lyrical titles. The traces of handiwork stand out in particular, leading some to hastily assume that her works are "feminine". Given her nationality, they could also be considered "mysterious". While viewing her works, I have discovered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Eastern and Western art.





108그리고 그 너머: 겨울의 꽃 Towards 108 and beyond: Meditations on 9 & 12
ceramic, limestone powder, variable, 2014

Art has long been a means for self-discipline in Eastern art. John Ruskin (1819-1900) is perhaps the first Western art critic who associated art with morals. Painting and calligraphy have been a means for self-discipline through the fusion of paper, brush, and ink with Confucian values, like drawing mandalas in Lamaism and Zen painting in Zen Buddhism. With this, tradition artists were less interested in representing what they saw than Western artists. They pursued what they saw with their eyes alone. The tradition of considering painting and calligraphy a means for self-discipline still continues in contemporary Korean art that embraces Western art. I think an example of such is extremely meticulous handiwork, a feature of contemporary Korean art arguably called Korean pop.

This hallmark is also found in Priya Sundaravalli's work. We can see in her work no desire to use her excellent technical skill in order to make perfect vessels. Instead, what appears obviously is the mark of true effort in her handiwork as a potter. It seems like it would have been impossible for her to produce the two works, *I live this fall...* and *Someday the sun will turn...* without being completely immersed in their creation.

Before having an interview with me, she had sent a portfolio titled 'Going on a journey without a map'. What should we do if we make a trip without a map? We have to look for our destination by carefully observing and analyzing our surroundings, at times putting

our patience to the test. She had a hard time due to the language barrier at the Clayarch Gimhae Museum artist-in residency as she was the only foreign artist who joined the program. She recounts this difficulty as follows: "My experience in Korea was intense. I was the only foreign resident. Communication and conversation was impossible beyond a minute. I remember most of my time being one of 'silence' – it was like one long Vipassana session! But that was a blessing because I was forced to fling myself at visual or sensory life jackets that were around me."

Korea is one of the stops in her journey without a map. As she had once stated, her final destination is "art done by heart, not by mind." It is thus ridiculous to consider her work "feminine" or hastily define it as "mysticism" anchored to a preference of the exotic. Her work can be described as a tree taking root deep in the traditional Eastern view of art, considering artistic work a means for self-discipline. The tree solidly grows from the roots. I earnestly hope she will be able to arrive at her destination without trouble, expressing my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purpose of her "journey without maps".

지도 없는 여행을 떠나기

박춘호 김중영미술관 학예실장

프리아 산드라발리 Priya Sundaravalli는 인도 출신의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작가다. 그녀는 원래 안술을 배우는 의학도를 꿈꿔 의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생명공학을 전공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 갔다. 유학 중 우연한 기회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료 도자기수업을 듣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수업을 들으며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술적 소양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의학도의 꿈을 접고 도예가의 길을 선택하였다.

프리아는 이번 전시에 3점의 작품을 출품하였다. 그녀의 작업은 도조 ceramic sculpture 작업이며 설치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녀는 작품 제목을 자신이 선물 받은 김양식 시인의 시집에서 따왔다고 한다. 벽에 걸린 108개의 꽃들에 보름달이 비추는 『보름달 밤, 당신은 미지의 친구에게, 맑은 지혜의 말씀 가득히 실은 향기로운 꽃수레를 굴러 보낸다.』, 수북한 낙엽위에 네 점의 삼각 처리된 커다란 낙엽과 같은 형태의 세라믹작품이 있는 『가을에, 흩날리는 갈잎 속에 나는 이 가을 나를 모두 잃고 내가 산다.』, 마지막으로 야외에는 하얀 자갈 발 위에 검은 회색의 세라믹작품들이 있는 『해변에서, 어느 날엔가 태양이 맑게 되 돌아서서 바닷가 새 아침의 꿈을 펴는 날』과 같이 매우 서정적인 작품

들을 전시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작품이 자신의 감성만을 표현한 것이 아닌 듯싶다.

작품 『보름달 밤』에 대한 그녀의 설명에 의하면 벽에 설치된 꽃의 개수 108의 의미는 불교에서 중생이 살면서 겪어야 하는 번뇌의 숫자 108과 거의 유사한 의미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인간의 번뇌를 아름다운 꽃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그런 꽃들과 함께 풍요를 상징하는 보름달이 떠있다. 작품제목으로 인용한 시구와 함께 매우 역설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녀는 번뇌를 고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인 요소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작품 『가을에』는 삼각처리 된 네 점의 세라믹 작품이 눈에 띄었다. 얇은 세라믹 작품들은 그 크기로 봐서 점토의 물성 때문에 제작 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심하게 바늘구멍을 내어 하얀 점토를 삼각처리 그린 이미지는 그녀가 호주에서 원주민들이 창조신화를 그린 그림을 보며 느꼈던 신비스러움을 표현하고자 그 그림들이 있는 호주 오지의 풍경을 그린 것이라 하였다. 자연의 낙엽과 시원을 상징하는 그림을 삼각처리 만든 낙엽형태의 세라믹 작품은 서로 대비가 되며, “흩날리는 갈잎 속에 나는 이 가을 나를 모두 잃고 내가 산다.”는 제목으로 인해 어떤 삶에 대한 성찰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이 보인다.

작품 『해변에서』 여기저기 놓인 검은 회색의 세라믹작품들은 제주도의 화산암을 연상하며 만들었다고 한다. 이 작품은 흙으로 만들기가 매우 까다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녀는 200kg이 넘는 흙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그 많은 흙을 모두 사용하여 직관적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한다. 몰입하여 삼매경에 빠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작품의 제목과 모양새로 봐 탁 트인 수평선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순간의 걱정과 감격을 통해 삶의 희망을 표현한 작품이 아닐까 싶다.

프리아의 작품은 서정적인 제목과 어울리게 작품의 형태와 표면 질감이 매우 섬세하다. 특히 수작업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관객은 이런 그녀의 작업의 특징 때문에 ‘여성적’이라고 속단할 수도 있다. 또는 그녀의 국적으로 인해 ‘신비스럽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녀의 작품을 보면서, 동양미술과 서양미술 간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인식되는 것을 그녀의 작품에서도 발견하였다.



108 그리고 그 너머: 겨울의 꽃 Towards 108 and beyond: A winter's blossoms
ceramic, steel, 250x220x30cm, 2013



Beloved Jillye - A thousand and one moments Photo collage, Date calendar, variable, 2014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미술행위를 수양의 방법으로 삼았던 것이 동양미술의 오랜 전통이었다. 서양에서는 미술과 도덕을 연관시켜 예술관을 펼친 것이 아마도 존 러스킨 John Ruskin(1819-1900)이 처음이었던 거 같다. 지필묵(紙筆墨)이라는 매체의 특성과 유교적 가치관이 결합되어 서화(書畵)가 수양의 방법이 되었다면, 불교에서는 티베트 라마교의 만다라와 더불어 선불교에서도 선화(禪畵)를 그리는 것이 수행의 한 방안이었다. 이런 전통으로 인해 서양과 비교해서 눈앞에 보이는 형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가졌다. 그 너머를 추구했다. 이를 대변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색즉시공(色卽是空)이다. 필자는 서양미술을 수용한 지금의 한국미술에서도 서화를 수행의 방법으로 생각했던 전통은 변용되어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코리아나 팝이라 불리는 한국현대미술의 특징 중 하나인 지난 한 수작업이 그 예라고 생각한다.

프리아의 작업에서도 그런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녀의 작품에서는 도공으로서 빼어난 기술로 완벽한 용기(用器)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그녀의 작품들은 지난한 수작업의 흔적이 역력하다. 특히 『가을에』와 『해변에서』, 이 두 작품의 형태는 물입하

지 않고서는 만들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녀와 인터뷰하기 전 그녀는 필자에게 『지도 없는 여행 떠나기』라는 제목의 포트폴리오를 보내 주었다. 지도 없이 여행 떠나면 어떤 여행이 될까? 길안내가 없으니 세심하게 주위를 관찰하고 분석하며 목적지를 잘 찾아 가야만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인내심을 시험해봐야 하는 순간도 여러 번 있을 것이다. 그녀는 클레이아크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유일한 외국인 작가로 참여 해 언어장벽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녀의 '지도 없이 떠난 여행'에서 한국은 경유지 중 하나일 뿐이다. 그녀의 최종 목적지는 그녀가 밝힌 것과 같이 "머리(mind)에서가 아니라 가슴(heart)에서 우러나오는 예술"을 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작업을 단순히 '여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인도인이라는 이유로 이국적 취향에 기반 한 '신비주의'로 속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녀의 작업은 수행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동양의 전통 예술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탄실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와 같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그녀의 '지도 없이 떠난 여행'의 목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아무 탈 없이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한다.



어느 날엔가
태양이 맑게 되돌아서서
바닷가 새 아침의 꿈을 펴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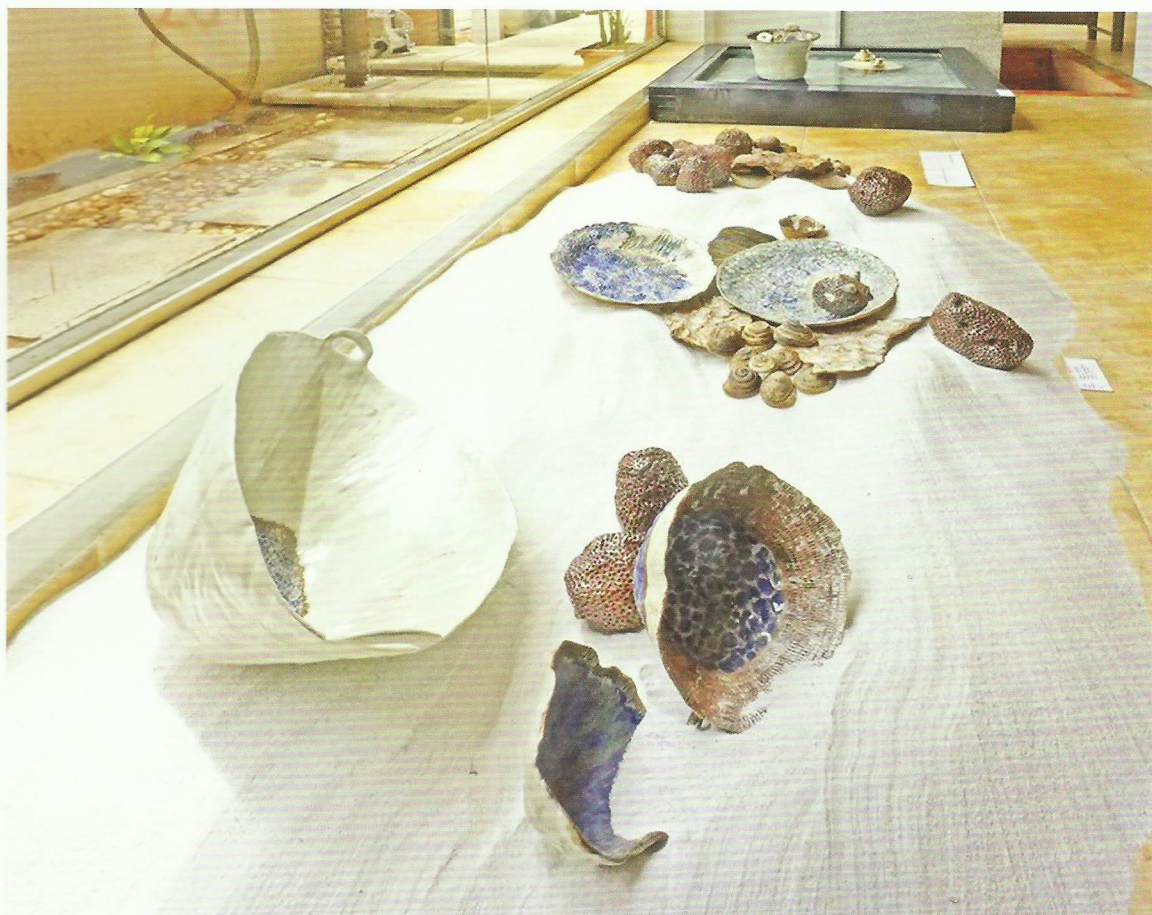
Someday the sun will turn bright again
and the sea blossom into fresh morning's dream

세라믹, 자갈, 가변설치, 2014
Ceramics, Pebbles, variable, 2014





김해공항 설치전경 Gimhae airport installation view, 2014



<버킷쇼> 포럼 아트 갤러리 Beached Ceramic, Limestone powder, variable, 2013



코리아나1 세라믹, 철, 가변설치, 2014
Koreana1 ceramic, iron, variable, 2014



코리아나2 세라믹, 철, 가변설치, 2014
Koreana2 ceramic, iron, variable, 2014